

국별 리포트

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11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0

I. 일반개황

면적	144천 km ²	G D P	2,065억 달러 ('15년)
인구	159백만 명 ('15년)	1 인 당 GDP	1,292달러 ('15년)
정치체제	내각책임제	통화단위	Taka (Tk)
대외정책	비동맹중립	환율 (달러당)	77.9 ('15년)

- 동쪽으로 미얀마, 서쪽으로 인도, 남쪽으로 벥갈만과 접하고 있으며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(1,203명/km², '13년)를 기록하고 있음.
-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, 이슬람교를 믿는 동벥갈 지역(현 방글라데시)은 파키스탄으로 독립함. 1971년 차별 정책에 반발한 아와미 연맹이 동 파키스탄의 분리주의를 주장하면서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정하고 서파키스탄(현 파키스탄)에서 탈퇴함.
-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로 전체인구의 약 47%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, 외자 및 원조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임.
- 빠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프로그램의 시행으로 2014년 세계은행 기준 저소득국가(Low-Income Country)에서 저중소득국가(Lower-Middle Income Country)로 합류하게 됨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/13	2013/14	2014/15	2015/16 ^e	2016/17 ^f
경제성장률	6.0	6.3	6.8	6.9	6.9
재정수지/GDP	-3.4	-3.1	-3.9	-4.3	-4.7
소비자물가상승률	7.5	7.0	6.4	6.7	6.9

주) 방글라데시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에서 당해 연도 6월까지로 구성됨.
 자료: IMF.

□ 민간소비 및 투자 증대로 7%에 근접한 높은 경제성장세 시현 기대

-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,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소득 증가, 재정의 20%를 차지하는 원조자금 유입으로 인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, 2010년 이후 6%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.
- 2015/16년 성장률은 전국적인 시위로 인한 정정불안에도 불구하고 해외 근로자 송금액 및 농업생산량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2006년 이후 최고치인 6.9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/17년에도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됨.

※ 소비증가율: 4.0%('14/'15) → 5.3%('15/'16^e) → 4.1%('16/'17)
 투자증가율: 7.1%('14/'15) → 8.9%('15/'16^e) → 8.3%('16/'17)

□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.7%로 소폭 증가 전망

- 취약한 세수기반, 복잡한 조세 제도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농업·전력·수출·석유 관련 대규모 보조금 제공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세수 증가는 소폭에 그친 반면 인프라 투자*, 전력보조금 지급 등 정부지출 확대로 2015/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4.3%로 추정되며, 2016/17년에도 4.7%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* '18년까지 10,000MW의 추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도, 부탄 등 인근 국가와 협력하여 수력발전사업을 시행해왔으며, 향후에도 방글라데시-인도-부탄 삼자 간 루엔체 수력발전사업(1억 달러 규모) 발주 계획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투자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9% 기록 예상

-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에도 불구하고, 비효율적인 에너지 수송문제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석유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안정 기여가 낮은 상태임.
- 냉장시설 부족 등 낙후된 인프라 상황에 따른 농작물 및 식품 공급량 제약과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세의 영향으로 2015/16년 6.7%를 기록한 데 이어 2016/17년에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6.9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농업, 의류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

- 방글라데시는 전체 노동력의 47% 이상이 농업 부문(전체 GDP의 16%)에 종사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 - ※ GDP 대비 산업별 비중('15년 기준): 서비스업 56%, 제조업 28%, 농업 16%
- 제조업의 58%를 차지하는 의류산업(Readymade garments)을 제외하면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자본재 및 소비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 -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약 80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약 5.3%(약 4백만 명)가 종사하고 있음.

□ 부패 및 행정 비효율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

-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, 기업 경영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 -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: TI)가 평가한 방글라데시 부패인식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) 순위는 168개국 중 139위로 하위권에 해당됨.
 - 더불어, 2016년 기업경영여건(Doing Business)은 전력공급(189위), 계약실행(188위), 재산등록(185위) 등 다수 부문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며, 189개국 중 174위를 기록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

- 총 인구는 2015년 기준 1.6억 명(세계 8위)이며, 전체 인구의 63.6%가 경제활동인구(15~59세)로 노동력이 풍부함.
 - 2015년 UN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, 2050년 방글라데시 인구는 2억 명으로 증가하며,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1.3%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, JETRO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15년 12월 기준 100달러로, 주변국 대비 낮아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.

※ 주변국의 월 평균임금 수준(달러): 베트남(185), 라오스(179), 캄보디아(162), 스리랑카(143)

다. 정책성과

□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

- 내륙 운송에서 도로의 비중이 큰 편(여객 88%, 화물 80%, '14년 기준)이나,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발전시설 부족으로 전체 인구 중 약 40%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인프라 시설이 부족함.
- 정부는 2021년까지 1인당 GNI가 4,063달러 이상인 중소득 국가(Upper-Middle Income Country)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'Vision 2021'이라는 국가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 부문의 발전에 힘쓰고 있음.
 -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,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, 제7차 5개년 계획('16~'20년)에 상하수도 설비 확충, 전력생산량 증대, 파드마 대교* 건설 등 수송인프라 확대 등의 추진전략을 선정함.

* 30억불 규모의 방글라데시 최장 대교(6.15km)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WB(12억 달러), ADB(6억 달러), JICA(4억 달러) 등이 참여하기로 함.

□ 빈곤 퇴치 프로그램 시행 등의 결과로 빈곤률 다소 감소

- 기본생활수준, 보건, 교육, 환경에 대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으로 빈곤률이 56.6%(’92년)에서 31.5%(’10년)로 감소함.
- 2013/14년도 기준 방글라데시의 1인당 GNI는 1,080달러를 기록하여 세계은행에서 분류하는 저소득국가*(Low Income Country)를 졸업하고 저중소득국가(Lower-Middle Income Country)에 합류함.

* 세계은행은 1인당 GNI가 1,044달러 이하의 국가를 저소득국가로 분류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/13	2013/14	2014/15	2015/16 ^e	2016/17 ^e
경 상 수 지	1,897	1,701	1,507	-131	-1,810
경상수지 / GDP	1.2	0.9	0.7	-0.1	-0.7
상 품 수 지	-6,363	-7,482	-5,891	-6,006	-6,508
수 출	28,638	29,925	31,736	33,164	34,855
수 입	35,001	37,407	37,627	39,170	41,363
외 환 보 유 액	17,564	21,785	27,023	28,751	-
총 외 채 잔 액	33,535	34,925	35,984	38,361	41,509
총외채잔액 / GDP	20.8	19.0	17.5	17.0	16.8
D. S. R.	3.4	3.0	2.8	2.7	2.6

자료: IMF, EIU.

□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예상

- 의류 등 저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고 원자재, 자본재, 소비재 등을 수입하는 교역구조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,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적자를 상쇄하고 있음.
- 2015/16년 해외근로자 송금이 154억 달러(GDP의 7.4%)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,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0.1%를 기록하며 적자 전환됨.

- 2016/17년에는 유가 회복 기대에 따른 수입액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, 동국 근로자들이 많이 진출한 걸프만 국가들의 경기둔화에 따른 해외송금액 감소* 등으로 동 비율이 0.7%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* 139억 달러('13/'14) → 150억 달러('14/'15) → 154억 달러('15/'16) → 142억 달러('16/'17)

□ 외환보유액 증가, 외채구조 개선 등 외채지급능력 양호

-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유입액* 및 원조액 증가**에 따라 2011/12년 12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/16년 외환보유액은 287억 달러를 기록함. 또한,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011/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/16년에는 17.0%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.

* 61.6억 달러('10/'11) → 71.6억 달러('11/'12) → 85.9억 달러('12/'13) → 100.3억 달러('13/'14)

** 10.8억 달러('10/'11) → 13.1억 달러('11/'12) → 14.5억 달러('12/'13) → 13.8억 달러('13/'14)

※ '16.9월 ADB는 '16-'20년동안 동국의 인프라 사업, 역량 개발, 농촌 개발 등을 위해 80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기로 발표

Ⅲ. 정치 · 사회동향

1. 정치동향

□ 총선 무효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정국 교착 상태 지속

- 방글라데시 국민당(BNP)을 주축으로 한 야당 연합이 2014년 1월 시행된 총선에 불참하고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였으며, 이를 경찰이 무력 진압하면서 야당 지지자 150명 이상이 사망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.
 -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(AL)은 야권의 불참과 유혈 사태 속에서도 예정대로 총선을 강행해 총 300개 선거구 중 232석을 차지하였으나 투표율은 20% 수준으로 낮아 반쪽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.
- 야당 연합은 새 총선을 요구하며, 총선 1주년인 2015년 1월에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함. 이에 따라 시작된 전국적인 '교통 봉쇄' 시위는 버스, 트럭 등 차량에 대한 무차별 방화 등의 소요사태로 심화됨.
 -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위대가 총 1만 명 연행되는 등 5월 까지 사회불안이 지속되었으며,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19년까지 정국 불안정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.

2. 사회동향

□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개선

- 2012년 다카 인근 패션 의류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2013년 4월 라나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 사고를 기점으로 의류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2013년 중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.
- 이에 정부는 2013년 12월 의류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(38달러)을 77% 인상한 68달러 수준으로 확정하였음. 또한 사망위로금·퇴직금 지급, 근로자보험 의무가입 등 근로환경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2013년 7월 노동법을 개정하고 2015년 9월 이를 발효함.

□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외국인 대상 테러 등 발생

-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약 90%가 이슬람교 신자이며, 이 중 대다수가 수니파로 구성됨.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크지만, 소수인 시아파에 대한 차별이 없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미미한 편임.
- 그러나 2015년 중 이슬람 극단주의에 비판적인 인터넷 블로거 4명이 괴한들 에게 피살되었으며, 2016년 7월 다카 식당에서 외국인 18명을 포함한 22명이 숨지는 등 피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.
- 2015년 5월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렸음. 2016년 8월 다카 식당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자마예틀 무자히딘 방글라데시(JMB)의 지도자 등을 사살하는 등 대테러활동에 힘쓰고 있으나,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인도와 경제·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노력

- 인도의 맘모한 싱 전 총리('11.9월)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('13.3월), 모디 총리('15.6월) 등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등 양국은 경제·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음.
-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입국('15년 기준 총 수입액의 22.4%)으로 면, 면사, 곡물, 차량 등을 수입하고 있음. 또한 2016년 3월 인도 수출입은행은 방글라데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0억 달러의 수출신용을 제공기로 함.

□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

-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제2위 수입국('15년 기준 총 수입액의 14.1%)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으로 방글라데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 공여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.
- 2016년 6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는 방글라데시 배선망 개선 사업(1.6억 달러)에 대한 차관 지원을 승인하였으며, 동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수송,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36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기로 합의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2012년 IMF 차관 승인 이후 차관제공 조건 성실히 이행

- IMF는 2012년 4월부터 3년간 총 9억 8,700만 달러 규모(10년간 무이자)의 확장 차관*(Extended Credit Facility) 제공을 승인하였으며, 방글라데시는 동 차관제공 조건**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.

* 국제수지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IMF 차관의 한 종류로 대출조건이 차입국에 유리한 양허성 차관제도

** 물가수준 안정, 외환보유액 증가, GDP 대비 공공부채 감축, 세수 확보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조건

□ 지속적인 외채 관리로 양호한 수준의 D.S.R. 유지

- 외채의 83%가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('12/'13년 기준)이며, 정부가 외국인 증권투자 및 민간부문 해외차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외채 규모 변동폭이 크지 않음.
- 지속적인 외채 관리와 수출 증가로 2015/16년 D.S.R.는 2.7%로 2012/13년 이후 3%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2. 국제시장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5등급 (2016. 06)	5등급 (2015. 06)
S&P ^{주)}		
Moody's	Ba3 (2016. 05)	Ba3 (2014. 04)
Fitch	BB- (2016. 04)	BB- (2015. 08)

주) S&P와 당행 간의 계약에 의거, 등급정보 미공개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73년 12월 18일(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)
- 주요협정: 항공협정(1979년), 문화협정(1979년), 이중과세방지협약(1983년), 투자보장협정(1986년), 경제기술협력협정(1993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1995년), 군수·방위산업협력협정(2004년), 무상원조기본협정(2014년)
-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6년 9월말 기준 2.98억 달러, 262건
- 교역규모

<표 1> 한·방글라데시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.10	주요품목
수 출	1,427	1,236	1,208	943	철강관, 합성수지, 종이제품
수 입	332	345	335	262	의류, 가죽, 기타섬유제품
합 계	1,759	1,581	1,543	1,205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2015/16년 경제성장률은 정정불안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 및 농업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활성화 등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인 6.9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/17년에도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됨.
- 세수증가가 소폭에 그친 반면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정부지출은 증가하여 2015/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4.3%로 추정되며, 2016/17년에도 4.7%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2016/17년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중은 유가 회복세에 따른 수입액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동국 근로자들이 많이 진출한 걸프만 국가들의 경기둔화에 따른 해외송금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0.7%로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총선 무효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당분간 정국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며, 외국인 대상 테러 발생 등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음.
-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과 D.S.R.이 양호한 수준이고, 외채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장 은 진 (☎02-6255-5716)

E-mail: eunjin@koreaexim.go.kr